

## 언어습득론과 독일어의 습득

홍우평(건국대)

### 1.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언어습득의 이론과 언어습득에 대한 경험적, 실증적 연구 결과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독일어 습득의 문제에 결부시켜 논의함으로써, 독어학의 응용분야로서의 '독일어 습득론'이 지니는 성격을 조망하는 데 있다.<sup>1)</sup>

언어습득에 대한 연구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의 보는 틀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언어습득은 '습득'의 한가지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심리학적 보는 틀의 관심영역에 속한다. '습득'이라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심적 상태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적 상태, 혹은 심적 상태의 변화, 발달에 관심을 가지는 심리학의 한 연구분야가 되는 것이다. 또한 언어습득에 대한 연구는 다름 아닌 '언어'의 습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언어학적 보는 틀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된다. 현대 언어학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가 마음, 혹은 두뇌에 표상되어 있는 언어 지식의 정체를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학은 바로 '습득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론의 확립을 통해 언어습득론에 간여하게 되는 것이다.<sup>2)</sup>

독어학의 응용분야로서의 독일어 습득론의 성격은 이 두 가지 보는 틀 중 일단 언어학적 보는 틀에 의해 규정되어야 할 듯 하다. 독어학이 심리학보다는 언어학에 밀접하다는 점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리학적 보는 틀과 언어학적 보는 틀이 최근에 대두된 인지과학적 보는 틀 속에 자연스럽게 함유하게 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지과학은 마음과 두뇌의 조직과 활동, 즉 인지에 대한 일반이론을 구성하고, 이를 기계에

1) 본고는 한국독어학회의 제2회 학술대회 (2000년 6월 22일 - 24일, 성균관대학교 (주제: 독어학의 응용분야))에서의 특강을 보완, 정리 한 것이다.

2) 심리학과 언어학의 상호관계와 그 변천사에 대하여는 이정모(1998a, 1998b) 참조.

의해 검증하고자 하는 통합과학의 성격을 지닌 학문으로서, 심리학, 언어학, 철학, 신경과학, 컴퓨터과학 등의 학제간 연구를 지향한다 (Stillings et al. 1995, 이정모 1996, 한광희 등(2000) 참조). 따라서 독일어 습득론이 언어학적 보는 틀을 넘어 인지과학적 보는 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심리학적 접근 또한 인지과학적 보는 틀을 통해 독일어 습득론에 개입할 여지가 새롭게 생겼음을 의미한다 (Clahsen 1999 참조). 결국 독일어의 습득에 대한 논의는 언어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인지과학적 보는 틀 모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본고의 논의는 언어습득을 보는 여러 틀 중 언어학적 틀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원리와 매개변항의 이론 (Prinzipien- und Parametertheorie, 이하 PPT, Chomsky 1981, 1986)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PPT는 언어학의 이론으로서 언어지식, 특히 통사론적 지식의 정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이론입과 동시에 언어습득, 즉 통사론적 지식의 습득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가설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학적 관점에서 언어습득에 접근하는 데 가장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이론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2에서는 PPT에서 주목하는 언어지식의 속성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언어습득에 대한 PPT의 기본입장을 개관한다. 3에서는 PPT에서 언어습득에 대해 설정되는 가설들이 언어습득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에 의해 검증, 혹은 반증되면서 새로운 연구방향이 설정되는 과정을 영어와 독일어의 재귀사 습득을 예로 들어 살펴본다. 4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독어학이 그 응용분야로서 생각해 보아야 할 독일어 습득론의 성격과 전망을 정리해 봄으로써 논의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 2. 언어지식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 2.1. 언어습득의 논리적 문제점

PPT에 의하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통사적 지식 중에는 출생 이후에 언

어자료와의 접촉을 통하여 습득하였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고도로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 다시 말해 PPT 에서는 인간의 제1언어습득을 인간의 지식 획득에 나타나는 고전적 문제인 이른바 플라톤의 문제 (Plato's Problem), 즉 인간은 어떻게 주변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증거들에 입각하여 추론해 낼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궁극적으로 알게되는가의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로 간주한다 (Chomsky 1986). 영어의 재귀사가 가지는 통사적 특성을 통해 이 문제가 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White 1989: 9f. 참조).

- (1)
- (a) John saw himself.
  - (b)\*John said that Fred liked himself.
  - (c) John said that Fred liked himself.
  - (d) John told Bill to wash himself.
  - (e) John promised Bill to wash himself.
  - (f)\*John believes that himself is intelligent.
  - (g) John believes himself to be intelligent.
  - (h) John showed Bill a picture of himself.

영어의 재귀사 himself 는 대응어로서 문장 내에서 자신과 공지시 관계에 놓이는 다른 명사구, 즉 선행어를 가지게 되는데, 이 때 가능한 공지시 관계와 불가능한 공지시 관계의 구분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예컨대 (1)에서 공지시 관계에 놓이는 성분들을 이탤릭으로 표시했을 때, (a), (c), (d), (e), (g), (h) 는 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반면, (b), (f) 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문제는 영어의 원어민들이 이러한 문법성의 차이에 대한 직관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가 이다. 영어를 습득하는 아동들은 재귀사가 통상적으로 선행어와 동일한 절에 속함을 발견해야 함과 동시에 ((a), (b), (c)),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알아내야 하며((d)), 재귀사가 부정사구문인 부문장의 주어자리에는 올 수 있으나 ((g)), 시제절인 부문장의 주어자리에는 올 수

없음을 알아내야 한다((f)). 또한 재귀사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명사구가 통상적으로 선행어가 되지만((b), (c), (d)), 여기에도 예외가 있음을 알아내어야 한다((e)).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재귀사의 선행사가 단지 하나의 명사구로 제한되는 반면((c), (d), (e), (g)), 이것이 늘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h)). 이렇게 복잡한 재귀사와 선행어의 분포 양상을 언어습득과정에서 언어자료와 접촉해 가면서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 궁극적으로 습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White 1989: 10).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문제는 (b)나 (f) 와 같은 문장이 비문법적이라는 직관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가에 있다. (b)나 (f)와 같은 문장은 비문법적이기 때문에 아동에게 주어지는 언어자료에 들어있을 수 없으며, 주변인들이 이러한 문장을 일일이 예로 들어가며 그 비문법성을 아동에게 알려 준다고 볼 수도 없다. 남은 한가지의 가능성은 아동이 스스로 이러한 문장을 발화하고, 주변인이 그 비문법성을 지적해 주는 것인데, 아동은 주변인의 이러한 정보제공에 매우 둔감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다음의 대화를 보자.

(2)

Child: Nobody don't like me.

Mother: No, say "Nobody likes me."

Child: Nobody don't like me.

(이상의 대화가 8회에 걸쳐 반복됨)

Mother: No, now listen carefully, say "NOBODY LIKES ME."

Child: Oh! Nobody don't likes me. (McNeil 1966: 69).

이 대화에서 아동은 어머니가 지적해 준 문법적 오류 (Nobody를 don't + 동사원형과 같이 쓴 점)를 고집스럽게 수정하지 않다가 종국에는 엉뚱한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like를 likes 로 바꾼 점), 오히려 영어의 문법에 더 크게 벗어나는 문장을 산출하고 말았다. 이는 아동이 주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비문법성에 대한 정보, 즉 이른바 부정적 증거 Negative Evidenz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언어지식에 경험을 통하여 습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부분들이 있으며, 언어습득 과정에서 목표어의 비문법적인 문장들에 대한 명시적인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간혹 제공되더라도 활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어의 비문법적인 문장들에 대한 정확한 직관이 획득된다는 점을 언어습득의 논리적 문제점이라 한다(Hornstein/Lightfoot 1981 참조). 언어습득의 논리적 문제점은 결국 언어지식에는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얻어진다고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언어지식에 선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부분들의 구성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PPT가 언어습득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에 해당한다.

## 2.2. 보편문법과 매개변향고정

2.1에서 살펴보았듯이 PPT에서는 언어습득의 논리적 문제점에 주목하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언어지식이 있다고 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간은 이른바 보편문법 Universalgrammatik을 선형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며, 보편문법은 소수의 언어보편적인 원리들 Prinzipien 과 언어에 따라 상이한 값을 취할 수 있는 매개변향들 Parameter 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Chomsky 1981, 1986). 보편문법의 원리들은 어느 언어에서나 위배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언어습득과정에서 변화하지 않으며<sup>3)</sup>, 매개변향(들)이 목표어의 값으로 고정되어가는 과정 Parameterbelegung (parameter-setting) 이 통사적 지식 습득의 요체에 해

3) 엄밀하게 말하면 보편문법의 원리들이 언어습득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도 겪지 않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두 개의 상이한 가설이 있다. 먼저 보편문법의 원리들이 언어습득의 초기에서부터 모두 존재하며, 그 근본에 있어서는 변화를 겪지 않는다고 보는 가설이 지속성 가설 Kontinuitätshypothese 이며, 보편문법의 원리들 중 일부는 출생 이후에 생겨난다고 보는 가설이 생장가설 Reifungshypothese 이다. 이 두 가설들 중 어느 것이 옳은가는 경험적 증거에 의해 정해될 수 있는 문제라 하겠다. Goodluck (1991: 153f.) 참조.

당한다고 본다.

매개변항고정의 과정은 예컨대 언어습득에서 목표어 Zielsprache 가 기본 어순으로 영어에서처럼 주어-동사-목적어의 어순을 취하느냐 독일어에서처럼 주어-목적어-동사의 어순을 취하느냐의 문제, 혹은 목표어에서 주어의 생략이 영어에서처럼 허용되지 않느냐 아니면 이태리어나 한국어에서처럼 자유로우냐의 문제 등에 대한 답이 구해지는 과정을 지칭한다. PPT에 바탕을 둔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은 아동의 제1언어습득에 나타나는 다양한 매개변항고정 현상들을 확인해 냄으로써, PPT가 단지 언어습득에 대한 하나의 가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습득을 실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됨을 보여준 바 있다(Goodluck 1991, O'grady 1997, Crain/Lillo-Martin 1999).

한편 PPT를 성인의 제 2 언어습득의 연구에 이용하고자 하는 움직임 또한 매우 활발하다(White 1989, Flynn et al. 1998 등. 홍우평 1994 참조). 만일 제2언어습득에서도 매개변항고정(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매개변항재고정 Parameterumbelegung (parameter- resetting), (Flynn 1987 참조)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제2언어습득에 대한 하나의 정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1언어습득과 제2언어습득의 유사성을 밝히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PPT에 입각한 언어습득의 연구에서 관건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매개변항(재)고정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PPT에서 말하는 매개변항고정의 가장 큰 특징은 매개변항고정이 다수 문법현상의 동시습득효과 Entwicklungszusammenhang (clustering effect)를 유발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언어습득에서 매개변항고정이 일어남을 확인한다는 것은 하나의 매개변항에 연관되는 여러 문법지식이 동시에 습득됨을 확인한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방법은 다양한 언어들의 제 1 언어습득에 대한 연구, 예를 들어 영어의 제1언어습득에 대한 연구(Hyams 1986 등), 독일어의 제1언어습득에 대한 연구(Clahsen 1991 등)등에서 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PPT에 입각한 제2언어습득의 연구에서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White 1989, 4장 참조).

이제 재귀사의 통사적 특성에 대한 보편문법의 원리와 매개변항에 대해 알아보고, 재귀사 습득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서 재귀사에 관련된 매개변

항의 고정에 대해 밝혀진 점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언어습득의 이론과 언어습득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결과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3. PPT에 입각한 재귀사의 습득 연구

#### 3.1. 재귀사의 통사적 특성과 결속원리

2.1에서 (1)의 문장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듯이 재귀사와 선행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직관을 후천적 경험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재귀사와 선행어의 관계는 PPT에서 인간이 선형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간주하는 보편문법에 일정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4)</sup>

재귀사의 통사적 특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보편문법의 원리는 (3)의 결속원리로 집약된다.

##### (3) 결속원리

재귀사는 자신의 지배범주 내에서 결속된다.

결속원리를 이루고 있는 '지배범주'와 '결속'이라는 개념은 다시 각각 (4)와 (5)로 정의된다.

##### (4) 지배범주(governing category)

A의 지배범주는 A와 A의 지배자, 그리고 SUBJECT를 포함하는 최소의 범주이다(SUBJECT=[NP, IP], [NP, NP] 혹은 AGR).

4) 재귀사와 선행어의 관계, 즉 재귀사의 통사적 특성은 PPT에서 보편문법의 원리들을 찾아내고, 그 속성을 규명해 가는 과정에서 항상 핵심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던 주제의 하나이다. 재귀사의 속성규명에 있어서의 표준적 가설들과 최근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문제들에 대하여는 Harbert (1995) 참조.

(5) 결속

B 가 A를 성분통어(c-command)하고 A와 공지시관계에 놓이면 B는 A를 결속한다.<sup>5)</sup>

(3), (4), (5)는 재귀사가 자신과 자신의 지배자 및 자신이 속한 문장이나 명사구의 주어 혹은 일치자질(=AGR)을 포함하는 최소의 범주 내에서 자신을 성분통어하는 명사구와 공지시관계에 놓여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제 (4)에 입각하여 (1)의 문장들에 나타난 재귀사의 지배범주를 각각 [ ]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6)

- (a) [ John saw himself ]
- (b)\*John said that [ Fred liked himself ]
- (c) John said that [ Fred liked himself ]
- (d) John told Bill [ PRO to wash himself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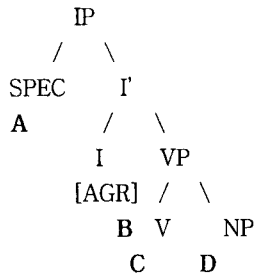
---

5) (3), (4), (5)는 Haegemann (1991: 209)을 재구성한 것이다. (5)의 ‘성분통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성분통어)

A와 B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직접상위범주(dominate)가 아니고 A의 상위에서 처음 분지하는 접점(node)이 B의 상위범주의 하나일 때 A는 B를 성분통어한다.

위의 정의에 의하면 아래의 구조에서 예컨대 A는 IP 이하의 성분들인 B, C, D 모두를 성분통어 하지만, B, C, D 중 어느 것도 A를 성분통어하지 않는다.





- (e) John promised Bill [ PRO to wash himself ]
- (f)\*John believes that [ himself is intelligent ]
- (g) [ John believes himself to be intelligent ]
- (h) [ John showed Bill a picture of himself ]

(6)(a)에서 재귀사 himself 의 지배자는 동사 saw 가 되며, SUBJECT 는 주어 John 혹은 John 과 saw 의 일치를 요구하는 AGR 이 된다. 따라서 SUBJECT를 어느 것으로 선택하는가에 관계없이 himself 의 지배범주는 문장 전체가 되며 himself는 이 영역 내에서 자신을 성분통어하는 John 과 공지시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즉 John 에 의해 결속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결속원리를 준수하여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6)(c)의 문법성도 거의 같은 원리에 의해 설명이 된다. 반면 (6)(b)에서는 himself가 지배범주 밖에 있는 주문장의 John에 의해 결속되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6)(d)와 (6)(e)에서는 부정사구문의 공범주 주어인 PRO가 SUBJECT가 되기 때문에 himself의 지배범주가 부정사구 전체가 되며, himself는 일단 이 지배범주 내에서 PRO에 의해 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 PRO가 (6)(d)에서처럼 주문장의 목적어를 지시하느냐 (6)(e)에서처럼 주문장의 주어를 지시하느냐에 따라 himself가 궁극적으로 지시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주문장의 동사가 가지는 어휘적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귀사의 결속원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제이다. (6)(f)에서는 부분장의 일치자질 AGR이 himself 의 지배자이자 SUBJECT 가 됨으로써 부분장이 지배범주가 된다. 그러나 himself가 이 지배범주 밖에 있는 주문장의 John에 의해 결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6)(g)와 (6)(h)에서는 SUBJECT 가 각각 주문장의 AGR 혹은 주어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체 문장이 지배범주가 되고, himself는 이 영역에서 결속되어야 한다는 결속원리가 준수되고 있다.

따라서 (3)의 결속원리가 보편문법의 한 부분으로 인간에게 선형적으로 주어지며 언어습득과정에서 새로이 습득되어질 필요가 없다면, 2.1에서 논의하였던 언어습득의 논리적 문제점 중 재귀사의 통사적 특성에 결부되는 부분이 해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어지식의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이러한 방식의 이론구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PPT가 취하고 있는 기본입장인 것이다.

### 3.2. 재귀사는 원거리결속될 수 있다: 지배범주매개변항

(3)의 결속원리가 보편문법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면, 이 결속원리에 입각하여 단지 영어에서의 재귀사의 통사적 특성 뿐 아니라 영어 이외의 다양한 언어에 나타나는 재귀사의 통사적 특성이 설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재귀사의 통사적 특성은 동일하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한국어 예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7)

(a) [ 병은 자기를 사랑한다 ]

(b) 을은 [ 병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 생각한다

(c) 갑은 을이 [ 병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 생각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7)의 문장들에 쓰인 한국어의 재귀사 ‘자기’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면 (3), (4), (5)에 의해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이 바로 드러난다. 즉 (7)(b)와 (7)(c)에서 ‘자기’는 [ ]로 표시된 지배범주 내에서 결속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지배범주 밖에 있는 명사구들 ((7)(a)에서는 ‘을’, (7)(b)에서는 ‘을’ 혹은 ‘병’)에 의해서도 결속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3)의 결속원리를 여기면서도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재귀사는 지배범주 내에서 결속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언어보편적 원리에서 “지배범주”에 해당하는 영역이 언어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하며, Wexler/Manzini (1987: 53)의 지배범주매개변항 (governing category parameter)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포착한 하나의 제안이었다.

(8) 지배범주매개변항

A가 B와 B의 지배자 그리고 다음 중 한 범주를 포함하는 최소의 범주일 때 A는 B의 지배범주가 된다.

- (A) 주어 (영어)
- (B) INFL (이태리어)
- (C) 시제 (러시아어)
- (D) 직설법 시제 (indicative tense)(아이슬랜드어)
- (E) 모문의 시제 (root tense) (한국어)

(8)은 (9)(와 이에 상응하는 각 언어의 문장)에서 재귀사 himself 가 (A) 유형의 언어에서는 m 만을, (B) 유형의 언어에서는 m 혹은 l 을, (C) 유형의 언어에서는 m, l, 혹은 k를, (D) 유형의 언어에서는 m, l, k, 혹은 j 를 지표로 가질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E) 유형의 언어에서는 m, l, k, j, i 중 어느 하나를 지표로 가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상이한 매개변방향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sup>6)</sup>

(9) *Keith<sub>i</sub> said that [Ronnie<sub>j</sub> requires that [Bill<sub>k</sub> persuade [Charlie<sub>l</sub> to consider [Mick<sub>m</sub> fond of himself ] ] ] ]*

결국 (8)은 재귀사의 지배범주가 영어에서처럼 주어를 포함하는 최소의 범주로 제한될 수도 있지만, 언어에 따라서는 이 영역보다 넓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어에서처럼 아무리 긴 복합문의 경우라도 문장 전체에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잘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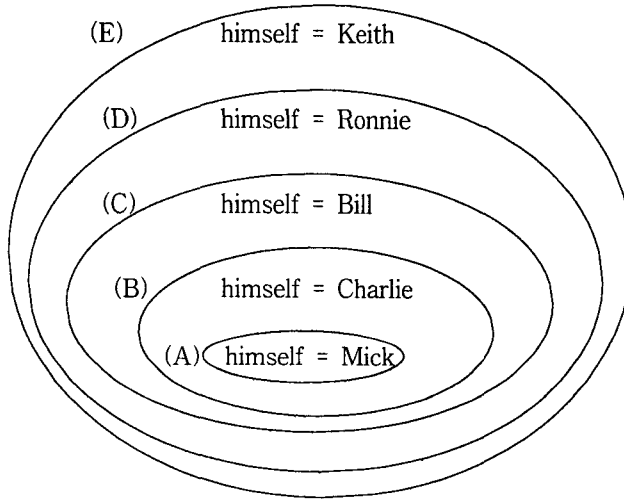
### 3.3. 지배범주매개변향의 고정과 부분집합의 원리: 이론

(8)의 지배범주매개변향이 재귀사의 통사적 특성이 언어마다 상이하다는 점을 잘 설명할 수 있지만, 언어습득에서 지배범주매개변향값을 어떻게 고정할 것인가를 따져보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지배범주 매개변향값을 (A)로 가지는 언어에서부터 (E)로 가지는 언어 사이에 다음의 그림과

6) 재귀사 himself 가 임의의 지표를 가진다는 말은 그 지표를 가진 문장내의 명사와 공지시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뜻한다.

같은 부분집합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10)



(10)은 (9)에 해당하는 각 언어의 문장에서 재귀사가 지시할 수 있는 대상이 지배범주매개변항의 값에 따라 정해지는 양상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에 잘 나타나듯이 (A)유형 언어는 재귀사의 결속 가능성에 있어서 (B)유형 언어의 부분집합을 이룬다. 그리고 (B)유형 언어는 (C)유형 언어의, (C)유형 언어는 (D)유형 언어의 부분집합이 되며, (D)유형 언어는 (E)유형 언어의 부분집합이 되어 (E)유형 언어의 재귀사가 가장 광범위한 결속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지배범주매개변항의 값을 (8)(A)로 가지는 언어(himself = Mick)를 습득하는 과정에 있는 습득자가 지배범주매개변항을 (8)(B)로 (himself = Mick 혹은 himself = Charlie) 잘못 고정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부정적 증거 없이는 잘못된 매개변항값 (8)(B)를 버릴 수 없다는 데 있다. 습득자가 계속 접하게 될 ((8)(A)의 값에 합치하는) 언어자료는 모두 (8)(B)의 값에도 합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도 논의하였듯이 PPT 에서는 부정

적 증거, 즉 문장의 비문법성에 대한 증거가 언어습득에서 활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지배범주매개변항의 값을 정확하게 고정하지 못하고 마는 경우를 이론적으로 방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반면 지배범주매개변항의 값을(8)(B)로 (himself = Mick 혹은 himself = Charlie) 가지는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있는 습득자가 지배범주 매개변항을 (8)(A)로 (himself = Mick) 잘못 고정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해당언어에 들어있는 언어자료 (himself = Charlie)를 토대로 잘못된 매개변항값 (8)(A)를 버리고 새로운 (옳은) 값 (8)(B)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배범주매개변항의 고정이 부정적 증거 없이도 습득어에 맞게 고정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추가로 필요하다 (Berwick 1985, Wexler/Manzini 1987).

(11) 부분집합의 원리: (최소)부분집합을 이루는 언어의 값으로 언어습득을 시작하라.

(11)은 매개변항값을 (8)(A)의 값에서 (8)(B)의 값으로 수정하는 것은 부정적 증거 없이 가능하지만, (8)(B)의 값에서 (8)(A)의 값으로 수정하는 것은 부정적 증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8) 전체에 대하여 일반화하여 습득원리로 형식화한 것이라 하겠다.

### 3.4. 지배범주매개변항의 고정과 부분집합의 원리: 실제

3.3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편문법에 속하는 원리의 하나인 결속원리에서 지배범주가 언어마다 달라지는 것은 지배범주매개변항을 설정하고 그 값을 언어마다 다르게 주어 설명할 수 있지만, 언어습득에서 지배범주 매개변항이 성공적으로 고정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분집합의 원리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제 언어습득에서 지배범주매개변항의 고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분집합의 원리가 실제로 지켜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 3.4.1. 제1언어습득과 부분집합의 원리

우선 영어의 제1언어습득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진 점은 부분집합의 원리가 말하는 바와는 달리 영어를 습득하는 아동이 재귀사의 원거리결속, 즉 재귀사가 지배범주 밖에 있는 선행어에 의해 결속되는 것을 허용하는 시기가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Wexler/Chien(1985)에 의하면 생후 2세 6개월 시점의 아동들 중 20% 만이 재귀사를 지배범주 내에서 결속시킨다 (Franks/Conell 1996, McDaniel et al. 1990 등 참조). 또한 Solan(1987)에 의하면 영어를 습득하는 아동이 재귀사를 지배범주 밖에 있는 선행어에 결속시키는 비율은 시제절인 부문장에 재귀사가 속해 있는 경우보다 부정사구문인 부문장에 재귀사가 속해있는 경우가 훨씬 높다. 본고의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어습득에서 부분집합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영어 이외의 다양한 언어의 제1언어습득에서 아동이 재귀사의 원거리결속을 허용하는 단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됨으로써<sup>7)</sup>, 부분집합의 원리, 나아가 부분집합의 원리가 그 근간으로 삼고 있는 지배범주매개변항의 신빙성에 심각한 의문점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어(등)의 제1언어습득에서 아동이 어떻게 재귀사의 원거리결속을 허용하는 잘못된 문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구성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3.4.2. 한국인에 의한 영어와 독일어의 제2언어습득과 부분집합의 원리

2.2에서 언급하였듯이, PPT에 입각한 제2언어습득의 연구에서도 매개변항고정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핵심적 작업에 속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한국인에 의한 영어와 독일어의 제2언어습득에서 지배범주매개변항의 고정양상을 확인한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7) 아이슬랜드어의 습득에 대하여는 Hyams/Sigurjonsdottir (1990), 러시아어의 습득에 대하여는 Bailyn (1993) 참조.

먼저 Finer/Broselow (1986)는 한국인에 의한 영어의 제2언어습득에서 재귀사의 지배범주매개변항이 고정되는 양상과 부분집합의 원리의 준수여부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얻었다.

(12)

(a) Mr. Fat thinks that Mr. Thin will paint himself.

(b) Mr. Fat wants Mr. Thin to paint himself.

구체적으로 한국인은 (12)(a)처럼 시제절인 부문장에 들어 있는 재귀사(himself)에 대하여는 지배범주내의 선행어, 즉 Mr. Thin을 압도적으로 선호하지만, (12)(b)처럼 부정사구에 들어있는 재귀사에 대하여는 상당한 비율로 원거리 결속을 허용한다는 것이, 즉 Mr. Fat을 높은 비율로 선택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sup>8)</sup> 이것을 Finer/Broselow는 피험자들이 지배범주매개변항의 값을 영어의 값이 아닌 러시아어의 값으로 (잘못) 고정된 결과에 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즉 (8)(C)에 의하면 러시아어에서는 시제가 지배범주를 정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되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영어를 분석한다면 (12)(a)에서는 부문장만이, (12)(b)에서는 문장 전체가 himself의 지배범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Finer/Broselow가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인이 제2언어로 습득한 중간어(Interlanguage)로서의 영어도 UG에 의해 엄격히 제약되며, 이에 의해 자연언어의 구성원리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배범주매개변항의 값이 러시아어의 값으로 고정되었다는 것은 엄연히 자연언어에 허용되는 값의 하나가 선택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up>9)</sup>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제2언어습득에서 부

8) 부문장이 시제절인 경우와 부정사구인 경우에서 여러 가지 결속 가능성이 선택된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Finer/Broselow 1986: 165)

	국지결속	원거리결속	국지결속/원거리결속
[시제절]	91.7%	8.3%	0%
[부정사구]	58.3%	37.5%	4.2%

분집합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일 부분집합의 원리가 지켜졌다면, (12)(a)에서 뿐 아니라 (12)(b)에서도 himself가 Mr. Thin에 의해 결속되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지배범주매개변항이 왜 여러 개의 값 중 러시아어의 값으로 고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결점을 안고 있다. 지배범주매개변항을 이론적 출발점으로 삼는 연구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음은 홍우평/강기동 (1999)에서도 드러난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는 한국인이 지니는 독일어 재귀사 sich 에 대한 직관을 경험적으로 조사하였다. Finer/Broselow의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테스트 문장을 재귀사가 시제절인 부문장에 속하는 경우((13)(a))와 비시제절인 lassen-A.c.I 구문에 해당하는 부문장에 속하는 경우(13)(b))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피험자들이 재귀사의 선행어로 어떤 명사구를 택하는지를 확인하였다.

(13)

(a) Peter weiß, daß Hans sich für dumm hält.

(b) Peter läßt Hans sich den Leuten vorstellen

이 실험에서 초급수준의 피험자들은 부문장에 속하는 재귀사 sich 의 선행어로 지배범주 내의 명사구(부문장의 주어) 뿐 아니라, 지배범주 밖의 명사구(주문장의 주어)를 엇비슷하게 선호하였다. 반면 중급수준의 피험자들은 지배범주 내의 명사구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이 증가한 반면, 지배범주 밖의 명사구에 대한 선호도는 뚜렷이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제절 부문장과 비시제절 부문장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얻어진 것이

---

9) 예컨대 부정사구인 부문장에 들어있는 재귀사가 부문장 밖에 있는 선행어에 의해 결속되는 반면, 시제절인 부문장에 들어있는 재귀사가 부문장 내에 있는 선행어에 결속될 가능성은 논리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자연언어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간어가 보편문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중간어에서는 재귀사의 결속이 상술한 방식으로 허용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Finer/Broselow 의 논지이다.



다.10)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독일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는 한국인은 습득의 초기에 한국어의 지배범주매개변항값을 중간어로서의 독일어 문법에 전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한국어에서는 재귀사의 선행어가 선택되는 폭이 전체 문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관에 의존하여 독일어 재귀사의 선행어를 선택한다면 분명 초급피험자들의 보인 경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말은 영어의 제2언어습득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어의 제2언어습득에서도 부분집합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독일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는 한국인들이 궁극적으로 지배범주매개변항의 값을 한국어의 값에서 독일어의 값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홍우평/강기동(1999: 142f.)은 일단 이러한 매개변항의 (재)고정에 결정적 단서가 될 부정적 증거는 제공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보편문법의 작용에 의해 지배범주 매개변항이 독일어의 값으로 재고정되었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언어습득에서 재귀사의 통사적 특성이 습득되는 양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서 우선 밝혀진 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4)

(A) 재귀사의 지배범주가 목표어의 값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부분집합

10) 피험자의 수준에 따른 결속 성향은 다음과 같다(홍우평/강기동 1999: 134ff.)

초급수준의 피험자

	국지결속	원거리결속	국지결속/원거리결속
[시제절]	48%	7%	44%
[비시제절]	48%	13%	39%

중급수준의 피험자

	국지결속	원거리결속	국지결속/원거리결속
[시제절]	74%	6%	20%
[비시제절]	79%	8%	13%

의 원리는 지켜지지 않는다.

(B) 재귀사의 통사적 특성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증거 없이 잘못된 문법(재귀사의 지배범주가 목표어의 지배범주보다 넓게 정해지는 문법)으로부터 탈피할 방법이 있다.

이제 (B)에 제시된 '방법'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이러한 시도는 무엇보다도 지배범주매개변항을 통해 다양한 언어에 나타나는 재귀사의 상이한 통사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던 시도가 언어습득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결과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3.5. 대안: 재귀사의 유형구분과 상대적(relativized) SUBJECT

영어에서와는 달리 재귀사의 원거리 결속을 허용하는 언어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배범주매개변항에 의해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재귀사의 통사적 특성이 단지 언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는 관점을 취한 것이다. 반면 재귀사의 통사적 특성은 언어에 따라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재귀사 자신의 속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는 관점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재귀사의 원거리 결속이 핵재귀사, 예컨대 재귀사 “자기”처럼 핵어(X0)에 해당하는 재귀사에 대하여만 허용되며, 구재귀사, 즉 영어의 “himself”처럼 복합어(XP: him+self)에 해당하는 재귀사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Yang(1983), Pica(1987)).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여 Progovac(1992, 1993)은 재귀사의 지배범주에 들어있어야 하는 SUBJECT 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상대화함으로써 재귀사의 원거리결속 허용여부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sup>11)</sup>

(15) R 이 단일형태소로 이루어진(monomorphemic) 핵재귀사(X0 reflexive)

11) 이러한 논지는 Rizzi(1990)가 상대화된 최소성(Relativized minimality)을 제안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이면 핵어(X0 category, 즉 AGR)만이 R의 SUBJECT가 되며, R이 형태론적 복합체인 (morphologically complex) 구재귀사(Xmax reflexive)이면, 구(Xmax)에 해당하는 지정어 (specifier), 즉 [NP, IP] 또는 [NP, NP] 만이 R의 SUBJECT가 된다. (Progovac 1993: 756)

이제 (15)에 의하면 재귀사의 원거리결속의 허용여부는 해당 언어에 AGR(주어와 동사의 형태론적 일치현상)이 있는가의 여부와 재귀사의 종류, 두 가지 요인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한국어어의 재귀사 ‘자기’는 단일형태소로 이루어지므로 AGR을 SUBJECT로 가져야 한다. 그런데 한국어에는 통사적 AGR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배범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재귀사가 결속되어야 하는 영역에 아무런 제한이 생기지 않는다. 반면 영어의 재귀사 himself 는 형태론적 복합체를 이루는 구재귀사이기 때문에 지정어인 [NP, IP] 혹은 [NP, NP] 가 SUBJECT가 되어 문장단위(혹은 주어물 가지는 명사구 단위)가 재귀사의 결속영역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타당성은 무엇보다도 한국어나 영어와는 달리 핵재귀사와 구재귀사를 모두 가지는 언어에 나타나는 재귀사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검증해 볼 수 있겠는데, 중국어가 바로 그러한 언어에 해당한다. 다음의 중국어 예를 보자(Progovac 1993: 757).

(16)

Zhangsani renwei [Lisij zhidao [Wangwuk Xihuan zijii/j/k/ ta zijii\*/j/k ]]. Zhangsan thinks Lisi knows Wangwu likes self he-self

‘Zhangsan thinks that Lisi knows that Wangwu likes self.’

(16)은 중국어에 핵재귀사 (ziji) 와 구재귀사 (ta ziji) 가 모두 존재하며, 이 중 단지 핵재귀사만이 원거리결속될 수 있고 구재귀사는 원거리결속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어는 주어와 동사 사이의 AGR 이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핵재귀사 ziji 의 결속영역에는 제한이 없지만 구재귀사 ta ziji 는 AGR 이 아닌 [NP, IP] ((16)) 에서는 ‘Wangwu’를 SUBJECT 로

택하게 되어 제한된 결속영역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16)에서 ta ziji 가 Zhangsan 이나 Lisi 와는 공지시관계에 놓일 수 없는 이유가 된다.

또한 다음 러시아어 문장들의 상이한 문법성은 러시아어의 핵재귀사 svoji 는 AGR를 SUBJECT로 선택하여 결속영역을 정하지만, 구재귀사 drug gruga 는 지정어인 [NP, NP]를 SUBJECT로 선택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15)의 설명력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Progovac 1992: 674f.)

(17)

(a) Professori poprosil assistantaj [ PROj čitat' svoji/j doklad ].

Professor asked assistant read self's report  
'The professor asked the assistant to read self's report.'

(b) Vanjai znaet [ čto Volodjaj ljubit svoju\*i/j ženu ].

Vanja knows that Volodja loves self's wife

(c) \*Onii čitali [ moi žaloby drug na drugai ].

they read my complaints each on other  
'They read my complaints against each other.'

(8)의 지배범주매개변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러시아어 재귀사의 지배범주를 정하는 데 있어서 시제가 관건이라면 (17)(a), (b)가 문법적임은 설명될 수 있으나 (17)(c)가 비문법적이라는 점이 설명되지 못한다. 반면 (15)에 의하면 (17)(c)는 구재귀사를 포함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재귀사의 결속영역이 [NP, NP], 즉 moi žaloby (my complaints)를 포함하는 최소영역으로 결정되며, 이 영역 밖에 있는 oni 에 의한 결속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15)가 궁극적으로 재귀사의 결속현상 전반을 두루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이론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본고에서 논의대상이 아니다.<sup>12)</sup> 그러나

12) (15)에 입각한 설명에서 추가로 해명되어야 할 문제는 핵재귀사만이 주어에 결속된다 (subject-oriented)는 점과 재귀사 결속의 차단효과(Blocking effect), 그리고 아이슬란드어에서 재귀사 결속이 가정법시제를 가진 절을 넘어 직설법시제를 가지는 절을 그 영역으로 삼는다는 점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가능성

(15)는 언어습득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배범주매개변항과 부분집합의 원리가 봉착했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습득에 대한 일련의 후속연구들을 기획하여야 할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귀사의 통사적 특성의 습득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던 점들을 (15)에 입각하여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보기로 하자. 우선 영어의 제1언어습득에서 아동이 어떻게 재귀사의 원거리결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5)에 의하면 영어를 습득하는 아동이 영어 재귀사의 결속영역을 정확히 알게 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영어의 재귀사가 구재귀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어에 AGR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영어를 습득하는 아동이 재귀사의 원거리 결속을 허용한다면 이 두 가지 점 중 적어도 한가지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중 한가지를 습득함으로써 재귀사의 원거리 결속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한다. 이 말은 영어에 AGR이 있음을 알게 되면 재귀사를 핵재귀사로 오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귀사의 결속영역을 AGR을 포함하는 최소영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영어의 재귀사가 구재귀사인 것을 알게 되면 AGR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재귀사의 결속영역을 주어틀 포함하는 최소영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국인에 의한 영어의 제2언어습득에서 지배범주매개변항이 러시아어 값으로 고정된 이유에 대한 설명가능성을 보자.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지배범주매개변항에 입각한 관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15)에 의하면 제2언어습득자들이 영어의 AGR은 습득하였으나 영어의 himself가 핵재귀사인 것으로 오인한다면 러시아어에서처럼 시제, 그리고 이와 함께 AGR이 존재하는 영역까지 재귀사의 결속영역을 확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성립한다. 이것이 Finer/Broselow의 연구에 피험자들이 부정사구 부문장에 들어있는 재귀사에 한하여 결속영역을 주문장까지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상론하지 않겠으며, Progovac (1992, 1993)의 논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에 의한 독일어의 제2언어습득에서 지배범주 매개변항이 어떻게 한국어 값에서 독일어 값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자.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에 대한 설명 역시 지배범주 매개변항만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15)에 의하면 이것은 독일어 AGR의 습득을 통해 가능해 질 수 있다. 독일어의 재귀사 sich 는 한국어의 재귀사 ‘자기’ 처럼 핵재귀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독일어에는 한국어에서와는 달리 AGR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귀사의 결속영역은 AGR이 나타나는 문장단위로 제한된다. 따라서 독일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는 한국인이 초기에는 독일어 재귀사에 대하여 (한국어에서처럼) 원거리결속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독일어에 AGR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되면 AGR이 나타나는 영역까지로 재귀사의 결속영역을 좁힐 수 있게 될 것이다. 홍우평/강기동(1999)에서는 피험자들이 독일어의 AGR을 습득하였는지를 동시에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설명들은 아직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재귀사 습득에서 매개변항고정의 동시습득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된다는 점에서 고려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본다. 2.2에서 설명하였듯이 PPT는 매개변항고정이 다수 문법현상들의 동시적 습득을 유발함으로써 언어습득을 용이하게 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1언어습득과 제2언어습득에서 공히 매개변항고정이 일어남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다수의 문법현상이 동시에 습득됨을 보임으로써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인에 의한 독일어의 제2언어습득에서 재귀사의 통사적 특성의 습득과 AGR의 습득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라 하겠다.

#### 4. 맺는말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독어학이 그 응용분야로서 고려할 수 있는 독일어 습득론의 성격과 전망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우선 ‘독일어 습득론’이라는 말 자체가 독어학과 언어습득론이 만났을 때 가장 의미있게 형성될 수 있는 분야의 성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어학과 일반언어학의 차이를 구태여 규정해 본다면 독어학에서는 어떠한 언어이론을 택하느냐에 관계없이 분석하고자 하는 언어의 중심에 독일어가 서게 되는 반면, 일반언어학에서는 관심을 어느 특정한 언어에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것 정도가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언어습득론을 독어학에 끌어들인다고 할 때에도, 다른 아닌 '독일어' 습득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독일어 습득의 제반 양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언어습득 일반론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 설정이 가장 의미가 큰 것이다.

이렇게 독일어 습득의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언어습득을 보는 틀을 선택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언어학적 보는 틀로서 최근 언어습득의 경험적 연구의 토대로 가장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PPT를 택하여 독일어 습득론의 성격조명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하는 데는 PPT가 일단 제1언어지식, 즉 모국어(통사)지식의 속성을 규명하고 이의 습득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고안된 이론이지만, 최근에 제2언어지식의 속성과 습득의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독어학을 생각하고, 그 응용분야로서 독일어 습득론을 고려할 때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나름대로 독창적인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인에 의한 독일어의 제2언어습득' 분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PPT에 입각한 언어습득의 연구는 언어간의 경계, 그리고 제1언어습득과 제2언어습득 간의 경계를 특별히 두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언어지식에 대한 이론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거꾸로 언어지식에 대한 이론이 수정되어야 할 이유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말은 PPT에 입각한 언어습득의 연구는 비록 그 영역을 '한국인에 의한 독일어의 제2언어습득'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매우 다양한 영역의 연구성과들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수행하기 곤란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끝으로 본고에서는 심리학적 보는 틀과 인지과학적 보는 틀을 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독일어 습득론의 대상 영역이 결코 본고에서 고려했던 범위에 국한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 무엇보다도 언어학과 심리학

모두의 지붕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인지과학적 보는 틀이 독일어 습득론의 영역을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가 본고에 덧붙여진다면 독일어 습득론의 성격이 좀 더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 고 문 헌

- Baylin, J.(1993), LF movement of anaphors and the acquisition of embedded clauses in Russian. *Language Acquisition 2*: 307-335.
- Berwick, R.(1985), *The acquisition of syntactic knowledge*,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1986), *Knowledge of Language*. New York: Praeger
- Clahsen, H.(1991), Constraints on parameter-setting: A grammatical analysis of some acquisition stages in German child language. *Language acquisition 1*: 361-391.
- Clahsen, H.(1999), Lexical entries and rules of language: A multidisciplinary study of German inflect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2*: 991-1060
- Crain, S. & D. Lillo-Martin(1999),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 theory a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Blackwell.
- Finer, D. & E. Broselow(1986),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f reflexive binding, *Proceedings of NELS 16*, 154-167.
- Franks, S. & P. Conell(1996), Knowledge of binding in normal and SLI children. *Journal of Child Language 23*: 431-464.
- Flynn, S.(1987), *A parameter-setting model of L2 acquisition*. Dordrecht: Reidel
- Flynn, S., G. Martohardjono & W. O'Neil(eds.)(1998), *The generativ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ahwah, NJ: Lawrence



- Erlbaum.
- Goodluck, H.(1991), *Language acquisition: A linguistic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 Haegemann, L.(1991), *Introduction to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Oxford: Blackwell.
- Harbert, W.(1995), Binding theory, control, and *pro*. In: G. Webelhuth  
(ed.),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and the minimalist program*.  
Oxford: Blackwell, 177-212.
- Hornstein, N. & D. Lightfoot(1981), Introduction, In: N. Hornstein & D.  
Lightfoot (eds.), *Explanation in linguistics. The logical problem of  
language acquisition*, London: Longman, 9-31.
- Hyams, N.(1986),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theory of parameters*.  
Dordrecht: Reidel.
- Hyams, N. & S. Sigurjonsdottir(1990), The development of long-distance  
reflexive in Chinese. *Proceedings of NELS 19*: 193-206.
- McDaniel, D. H. Cairns & H. Hsu(1990), Binding principles in the  
grammars of young children. *Language Acquisition 1*: 121-138.
- McLeod, P., K. Plunkett, & E. T. Rolls(1998) *Introduction to connectionist  
modelling of cognitive process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cNeil(1966),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In: F. Smith & G. A.  
Miller (eds.) *The genesis of language*. Cambridge, MA: MIT Press,  
15-84.
- O'grady, W.(1997), *Syntactic develop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ica, P.(1987), On the nature of the reflexivization cycle. *Proceedings of  
NELS 17*: 483-499.
- Progovac, L.(1992), Relativized SUBJECT: Long-distance reflexives  
without movement. *Linguistic Inquiry 20*: 365-424
- Progovac, L.(1993), Long-distance reflexives: movement-to-Infl versus  
relativized Subject. *Linguistic Inquiry 24*: 755-772.

- Progovac, L. & P. Connell(1992), Long-distance reflexives, Agr-SUBJECTs and acquisition. Paper presented at the 21st Annual Linguistics Symposium: The reality of linguistic rules. Department of Linguistics, Univ. of Wisconsin, Milwaukee.
- Rizzi, L.(1990), *Relativized Minimality*. Cambridge, MA.: MIT Press.
- Solan, L.(1987), Parameter setting and the development of pronouns and reflexives. In: T. Roeper & E. Williams (eds.), *Parameter Setting*. Dordrecht: Reidel, 189-210.
- Stillings, N.A., S.E. Weisler, C.H. Chase, M.H. Feinstein, J.L. Garfield & E. L. Rislland(1995), *Cognitive science. An introducti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 Wexler, K. & Y.-C. Chien(1985), The development of lexical anaphors and pronouns. *Papers and Reports on Child Language Development* 24: 138-149.
- Wexler, K. & R. Manzini(1987), Parameters and learnability in binding theory, In: T. Roeper & E. Williams (eds.), *Parameter setting*, Dordrecht: Reidel, 41-76.
- White, L.(1989), *Universal grammar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Yang, D.-W.(1983), The extended theory of anaphors. *Language Research* 19: 169-192.
- 이정모(1996), 인지과학: 개념적 기초. 인지심리학의 제문제 (I): 인지과학적 연관 (이정모 편). 서울: 성원사. 27-54.
- 이정모(1998a) 언어심리학 형성사 (I): Chomsky 이전 언어학과의 상호작용. 인지심리학의 제문제 (II): 언어와 인지 (이정모/이재호 편). 서울: 학지사. 15-47.
- 이정모(1998b), 언어심리학 형성사 (II): Chomsky 언어학과의 상호작용. 인지심리학의 제문제 (II): 언어와 인지 (이정모/이재호 편). 서울: 학지사. 49-75.
- 한광희, 김민식, 변혜란, 김상문, 이익환, 임춘성, 나동렬, 임중우, 이일병, 김

진우, 이승종, 이민행, 방창균(2000), 인지과학. 마음·언어·기계. 서울: 학지사.

홍우평(1994), 2차언어습득에서 보편문법의 역할에 대하여. 인문논총 제 31집: 105-120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홍우평/강기동(1999), 한국인의 독일어습득에 나타나는 재귀대명사의 통사적 특성.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 5집: 126-149.

## Zusammenfassung

### Theorie des Spracherwerbs und der Erwerb des Deutschen

Hong, Upyong(Konkuk Uni.)

Im Rahmen der Prinzipien- und Parametertheorie (PPT) stellt man sich vor, daß dem Menschen die Universalgrammatik (UG) angeboren ist, die aus einer kleinen Anzahl sprachuniversieller Prinzipien und je nach der Sprache unterschiedlich zu belegender offener Parameter besteht. Die UG Prinzipien müssen demnach nicht gelernt werden; sie bilden von vornherein eine invariante Komponente des sprachlichen Wissens. Demgegenüber sollen die jeweilige Parameter der UG im Verlauf des Spracherwerbs aufgrund des sprachlichen Inputs mit Werten der Zielsprache belegt werden. Nach dieser Ansicht ist der Spracherwerb im Grunde als Prozeß der 'Parameterbelegungen' aufzufass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ist demonstriert worden, daß die PPT eine vielversprechende Grundlage für die empirische Untersuchung zum Erwerb des Deutschen bietet. Bisherige Ergebnisse aus Untersuchungen zum Erwerb der Reflexiv-Bindung beim Erst- sowie Zweitspracherwerb wurden vorgestellt und im Hinblick auf die Möglichkeit der weiteren Untersuchung zum Zweitspracherwerb des Deutschen durch Koreaner

diskutiert. Der Schwerpunkt der Diskussion wurde auf die Frage gelegt, wie die Theorie des Parameters mit Ergebnissen aus Untersuchungen zur Parameterbelegung beim Spracherwerb interagiert.

Auf psychologisch bzw. kognitionswissenschaftlich orientierte Ansätze zum Spracherwerb konnte in der vorliegenden Arbeit nicht eingegangen werden. Durch die Mithberücksichtigung beider Ansätze würde jedoch das Thema 'der Erwerb des Deutschen' die Angewandte Deutsche Sprachwissenschaft in Korea noch mehr anreichern.